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중생들에게 '실행력' 귀감 되길

경전 속 **코끼리 소견(所見)**

가장 불교적인 동물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코끼리를 일순위로 뽑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상아(象牙)가 여섯이나 되는 코끼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하며 수많은 경전에서 코끼리의 덕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는 범천의 세계창조 때 범천이 주문을 외어 만들어 냈다고 한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천사나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들이 하늘을 날다가 2인년이 넘은 커다란 고목의 가지에 부러뜨렸는데 그 밑에서 공부하던 신선(神仙)의 제자들이 몇 명 그 나무가지에 앉아 죽었다고 한다. 그러자 노한 신선은 신들에게 요청해서 코끼리의 날개를 없애버리도록 하였다고 한다.

불교의 수호신들 중에 환희천이라는 신은 시바신과 파르티여신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네사라는 코끼리 머



불치사리를 이운하는 페라헤라 축제의 코끼리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근거해서 중생을 이익케하는 10가지 원을 세우 그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며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부처님이 설명해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며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현보살은 왜 코끼리를 타고 다닐까?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동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실행력(實行力)의 귀감(龜鑑)이 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자의 왕도 코끼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용상의 대덕을 지닌 훌륭한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잘 이끄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무기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코끼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곳엔 여우가 자취를 감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길어가는 밤을 지킨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무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무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무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무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무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연꽃으로 승화시킨 **그리움 선율로**

6집 앨범 낸 **도신 스님**



이도록 사무치는 그리움은 처음이예요. 보고 싶어 울어버린 그리움은 처음이예요(중략) 가슴 깊이 스며오는 이별보다 더한 슬픔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활짝 피도록 웃을 거예요. 활짝 피도록 웃을 거예요.

노래하는 행자 도신 스님의 '처음이에요'는 오랜 그리움을 연꽃으로 승화시킨 찬불가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진리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진다. 도신 스님 6집 '너의 이름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으리'가 나왔다. 이번 신보에는 '처음이에요' '망자의 노래' '홀로 우는 밤' '그리움의 불꽃'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12곡이 담겼다.

"어느덧 음성포교를 해온지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생의 아픔과 함께 하고자 끊임없이 노래를 했건만 아젠 된 것인지 중생의 아픔은 더욱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번 음반은 '너의 이름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으리'는 타이틀처럼 감히 보살심의 마음을 내어 보았습니다. 단 한 중생이라도 아파하는 중생이 있다면 저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

이라는 원력을 담았습니다" 속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엄마'도 주목할 만하다. '나도 갈래 엄마 따라 갈래 엄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시작되는 곡은 8살에 동진 출가한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한 때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기도 원망도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죠. 출가 이후 한 번도 어머니를 뵈는 적이 없지만 세월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도 있다. 조용필의 '그리움의 불꽃'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등을 스님 특유의 음성으로 표현했다. 가요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평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담아봤어요. 찬불가 대중가요가 따로 있나요? 스님이 부르면 찬불가지"라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스님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앨범 자켓의 일러스트도 흥미롭다. 기타를 맨 동자승, 강렬한 색채의 하트, 산 위에 뜬 태양 등 스님의 낙관이 들어간 그림은 가사와 어우러져 흥미롭다.

스님은 1981년 가수 이도록이 씨와 의형제를 맺고 본격적으로 기타 드럼 작곡법 노래 등을 배웠고 한국 록의 황제 신중현과도 인연을 맺어 록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수행자가 대중음악에 뛰어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은사 스님인 이도록 스님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도신 스님이 6집 '너의 이름이 다하는...'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앞으로 후배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처음이에요' 등 12곡 수록
노래도 좋은 포교 교재죠
찬불가 보급에 앞장 설 터

"제가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하니 어느날은 당시 앞에서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습니다. 노래 부르며 스님 표정을 살피면 매우 흐뭇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면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기타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진 기타만 7개예요. 회초리로 맞기도 했죠." 하지만 도신 스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스님을 3

개월 동안 찾아 뵈지 않기도 했죠. 그렇게 겨우 허락을 받아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행사 무대에 서기로 했는데 스님이 범문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론 노래를 부르고 출렁랑을 치기도 했죠"

이제 스님은 6장의 앨범을 냈고 연 50-60회의 공연을 다니며 음성포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자리잡았다.

도신 스님은 "꽤 한 권 보다 노래 한 곡이 포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찬불가의 현실은 열악하다. 후배 양성은 물론 재정 마련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불가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능화스님, 불교무용 마스터과정 특강

7월 9일부터 동국대 평생교육원서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능화스님(겸임교수, 예능보유자)의 불교무용 마스터과정 여름특강을 개최한다.

강좌는 7월 9-25일까지 월·화·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36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일산 동국대병원 뒤편 강동동 무용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무용인 작법무 가운데 >바라춤 5중 >나비춤 4중 >범고춤과 불교무용이론 등이 진행된다. 능화스님은 "불가 비전으로 내려오는 교습법으로 >명인명무전 >현존재 >장존재 >월미현화 등 2천 700여 회의 공연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수료자 전원에게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한



동대서 여름특강을 하는 능화 스님의 '범고춤'

다. 또한 인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응시자 전원에게 가산점도 부여한다.

능화스님은 "불교무용은 다라니 수행을 통한 신업공양과 같다. 불자들이 기도를 겸해 심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031)961-5322-3

정혜숙 기자

"청춘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하고자"

신곡 'We're...' 싱글 앨범 발표

인디밴드 그룹 온더스팟의 리더 신궁이 8월 싱글 앨범 'We're still young'을 발표한다. 신보에는 이 시대 청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아 눈길을 끈다.

신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불교 명상과 108배를 통해 길러온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노래 가사에 담았다.

"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작정 캐나다로 떠났고 거기서 서광사, 정도회 등을 다니며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도회 불교대 경전반 등에서 공부하고 꾸준히 수행 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제 음악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어요"

이후 그는 사회적 메시지와 환경·사랑



'We're still young' 앨범 내는 신궁

을 주제로 한 음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 콘서트'의 오프닝 공연에서 음성공양을 펼치며 이 시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신곡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전해주고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들에게 제 노래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해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고품격 상품*
일 정 : 양곤 바간 해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호 7일 210만원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트레저, 후펜)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7일 129만원 / 6월~7월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7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